

오늘 국회 본회의... '수목원법' 등 110개법안 처리

〈순천만정원 국가정원 지정 관련 법〉

자원외교 국조요구서·공무원연금 특위 구성 결의안도 의결

자원국조 증인·기업인 가석방·비선 의혹 놓고 충돌 가능성

국회는 29일 본회의를 열어 일명 '수목원법'과 '부동산 3법' 등 110여개의 법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여야가 이미 큰 틀에서 합의한 자원외교 국정조사요구서와 공무원연금 개혁 특위(연금특위) 구성 결의안 등을 포함하면 이날 본회의에서 처리할 안건은 130여건이 된다.

국회는 우선 전남지역 현안 법안으로 순천만정원의 국가정원 지정을 위한 관련 법인 '수목원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처리한다. 또 여수해양박물관특구에 대한 민간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방안으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해양 관련 교육훈련 프로그램·회의·행사의 유치를 포함할 다각적인 특

구 활성화대책을 강구해 지원해야 한다는 내용의 '여수세계박람회 기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도 처리할 계획이다.

정부·여당이 주택·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기대하며 강력히 추진해왔던 '부동산 3법'이 본회의의 문턱을 넘게 됐다. '부동산 3법'은 주택법 개정안,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개정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 등이다.

자원외교 국정조사와 공무원연금 개혁 특위도 각각 국조요구서와 특위구성결의안이 통과되는 것을 시작으로 최장 125일간의 활동에 들어간다.

세정지민주연합의 요구로 여야가 합의한 서민주거복지특위 구성결의안도 처리될 예정이

다. 여야가 각각 추천한 조대환·권영민 등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 10명에 대한 선출안도 의결된다.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는 지난달 국회를 통과한 '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여야 추천 각 5명, 대법원장과 대한변호사협회장 지명 2명, 희생자가족대표의 선출 3명 등 모두 17명으로 구성된다.

여야는 이날 법안 처리를 시작으로 내년 1월 14일까지 남은 16일간의 12월 임시국회에서 쟁점법안 처리에도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새누리당이 핵심 민생·경제법안으로 꼽은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의료법 등을 비롯한 북한인권법, '김영란법'(부정청탁 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등에 대해 이견이 여전히 적지 않은 진통이 예상된다.

자원외교 국조와 공무원연금 개혁 특위도 앞으로의 행보가 순탄치만은 않은 전망이다.

자원외교 국조법위와 증인체택 범위, 공무원연금 개혁의 각본을 놓고 여야가 일제히 충돌, 임시국회가 파행으로 치달을 가능성도 상존한다.

특히 자원외교 국조와 관련, 세정지민연합은 전임 이명박 정부에 조정을 맞추고 있는 반면 새누리당은 역대 정권의 자원외교 전반을 다루어 한다고 맞서고 있고, 이명박 전 대통령과 당시 지식경제부 장관으로서 자원외교를 총괄한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증인체택 여부를 놓고 벌써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여야는 이와 함께 막바지 단계에 접어든 검찰의 '비선실세 국정개입' 의혹 수사결과 발표, 재벌총수 등 기업인에 대한 가석방 논란, 한국 수력원자력에 대한 해킹 사건으로 다시 쟁점으로 떠오른 사이버테러방지법 제정 등을 두고 충돌할 가능성도 있다.

/*박지경기자jpark@kwangju.co.kr

친박-비박 허니문 벌써 끝났나?

곳곳 파열음...총선 앞둔 주도권 싸움 분석도

새누리당 친박(친박근혜)계와 비박(비박근혜)계 간 갈등이 갈수록 고조되고 있다.

김부성 대표가 박세일 한반도선진화재단 명예이사장을 여의도연구원 원장으로 내정할 지 한 달이 넘었지만 친박계 반대로 아직 최고위원회의 의결을 받지 못한 것이나, 청와대 신년회 참석자 명단에 비박계인 이근원 사무총장의 이름이 빠져 논란이 일고 있는 것이다.

박세일 이사장의 영입이 표류하는 것은 최고위 서열 2위인 친박계 서정원 최고위원의 반대 때문이다. 친박계는 박 이사장이 한나라당 비례의원인 지난 2005년 박근혜 당시 당 대표의 세종시법 찬성에 반발해 의원직을 사퇴하고 탈당한 점 등을 들어 '해당 인사'의 임명 강행을 용인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박 이사장은 지난 19대 총선에서는 보수정당인 '국민생각'을 창당해 새누리당과 경쟁한 바도 있다. 이완구 원내대표 역시 박 이사장을 '비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내년 1월2일 열리는 청와대 신년인사회 참석자 명단에 친박계인 김재원 원내수석부대표는 들어간 반면 그보다 당내 서열이 높은 비박계 이 총장이 빠진 것도 김부성 대표를 자극했다. 김 대표는 청와대 정부수석직을 향해 "천지부간 못하는 사람들"이라고 비판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하버 경기 수원갑 당협위원장 선출이 지연되는 것도 김 대표와 서 최고위원 간 갈등과 연결돼 있다. 이 지역에서 재선을 지낸 박종희 전 의원이 비례대표인 김상민 의원이 경쟁하고 있는 가운데 당 조직강화특위는 여전히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박 전 의원은 그동안 서 최고위원의 비서실장 역할을 해온 반면, 김 의원은 김 대표 측에서 밀고 있어 힘겨루기 때문에 늦어지는 것 아니냐는 추측이 나온다.

이에 대해 정가에서는 2016년 총선을 앞두고 친박-비박계가 사실상 해게모니 쟁탈에 시동을 걸었다는 분석을 하고 있다.

특히 김 대표를 비롯해 당권을 장악한 비박계를 향해 친박계가 견제구를 던지며 세 걸질을 본격화하고 나선 만큼 내년부터 양측의 대결은 심화될 가능성이 크다는 게 대체적 관측이다.

/*박지경기자jpark@kwangju.co.kr

박지원 "강한 야당...통합대표로 정권교체 이루겠다"

당 대표 출마 선언...당 혁신안 발표

김대중·노무현 前대통령 묘역 참배

세정지민주연합 박지원 의원이 28일 내년 2·8 전당대회에서의 당 대표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박지원 의원은 이날 국회 정문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국민이 원하는 강한 야당, 당원이 원하는 통합 대표로 2016년 총선과 2017년 대선에서 반드시 승리하기 위해 당 대표 경선에 나선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당은 지금 특정 계파의 당으로 전락하느냐, 우리 모두가 주인인 당으로 가느냐 하는 갈림길에 서 있다"고 지적하며 "저 박 지원은 어떤 계파로부터도 자유롭다"고 강조, 이날 사실상 출마를 선언한 문재인 의원의 차별화에 나섰다. 그는 특히 "정권을 다시 찾는 일 외에는 어떠한 사심도 없다"며 "당의 대선주자들이 화려한 꽃을 피울 수 있도록 기꺼이 희생하는 당 대표가 되겠다"면서 당권과 대권 분리론을 거듭 강조했다.

박 의원은 출마 선언과 함께 ▲6개 지역 비례대표 할당제 ▲지방의원 비례대표 할당제 ▲정년 의무공천제 ▲공천심사위원 폐지 등 공천 혁명 방안 ▲중앙당 국고 보조 시도당 배분 ▲민주정책연구원 시도지부 설치 등 당 혁신안을 발표했다. 박 의원은 이날 회견에 앞서 서울 동작동 국립현충원을 찾아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한 뒤 동교동 이희호 여사를 예방했다. 회견 후에는 경남 봉하마을에 내려가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하고 권양숙 여사를 예방할 계획이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대권도전? "그냥 웃지요" 세정지민주연합 박지원 의원이 28일 국회 정문관에서 당대표 출마 기자회견 도중 대권 도전을 묻는 질문에 웃으며 대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동영 고문 새정치 탈당 '초읽기'

세정지민주연합 정동영 상임고문의 탈당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정 고문은 지난 27일 서울 영등포역 대회의실에서 전국 지지자 200여명과와 송년 모임을 겸한 토론회에서 "국민의 눈물을 닦아주는 길을 가는 데 있어 모든 기득권을 내려놓고 밀알

과 밀거름이 되겠다"고 밝혀 탈당 후 신당 창당그룹에 합류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음을 시사했다.

그동안 정 고문은 각계 진보인사 100여명으로 구성된 '국민의 눈물을 닦아줄 수 있는 새로운 정치 세력'의 건설을 촉구하는 국민모임(약

칭 국민모임)이 추진하는 신당 창당 작업에 참여하는 방안을 검토해 왔다.

이날 모임에서 대다수의 지지자들은 "국민 모임 105인의 성명이 시대의 요청이고 국민의 외침이다. 이를 따르는 게 정 고문이 지금까지 걸어온 길에 맞다"라며 정 고문의 결정에 따른다는 의견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카터 전 미대통령, 이석기 구명나서

대법원에 성명서 전달

지미 카터 전 미국 대통령 측이 내란음모·선동 혐의로 재판을 받는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 등의 구명을 위해 대법원에 성명서를 전달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카터 전 대통령이 설립한 인권단체인 카터센터는 지난 18일 '대한민국 국회의원의 유죄 판결에 대한 카터센터 성명서'를 내고, 우편을 통해 우리 대법원에 발송했다.

카터센터는 성명서에서 "대한민국 현직 국회의원 이석기 의원에 대한 서울고법의 유죄 판결을 우려한다"며 "서울고법은 추종자들에게 대한 이 의원의 녹취록을 근거로 징역 9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 성명서는 19일 헌법재판소가 통진당 해산을 결정하고 의원직 상실을 선고하기 직전 작성됐다.

카터센터는 "현재 상고심이 진행 중인 이 소송에서 제시된 사실들의 진위에 관해 언급하지 않겠다"며 "어떤 방식으로든 대한민국 내정에 간섭하지도 않을 것"이라고 전제했다. /연합뉴스

2인분을 주문하면 2인분을 더드리는 참숯에 구워먹는 소고기전문점

소갈비살, 소안창살, 살치살
소고기 비싸게 먹을 필요 없습니다! 1인 만원이면 실컷 드실 수 있습니다

| | | |
|-----------|---------------------|--------------------------|
| 소갈비살 기본가격 | 기본2인분 2+2 = 20,000원 | 국내산돼지갈비2+2(700g) 20,000 |
| | 기본3인분 3+3 = 30,000원 | 국내산갈비매기살2+2(480g) 20,000 |
| | 기본4인분 4+4 = 40,000원 | 왕갈비탕(6,000원) 볼백(6,000원) |
| | | |

초대박매출
신규창업,입증전환 시 성공을 보장합니다
오픈형 일평균 2백만~4백만원 이상 대박!!
광주, 호남지역 체인점모집

262-0049/010-3803-2612
오치점(266-0045) · 두암점(251-8216)
교대점(526-6617) · 일곡점(573-5204)

1636 걸고 믿음소망 말하세요

2014미스코리아와 함께하는 **한글전화번호 1636**

모든 상호·이름이 전화번호가 됩니다
한글 전화번호 1636은 1588, 1544, 1644 등과 같은 대표번호 서비스로 1636 뒤에는 업종, 상호명등 모든말이 전화번호가 되는 차세대 음성인식 통신 서비스입니다. 1636전화걸고 사용중인 상호를 말하시면 연결됩니다.

기본의 숫자번호 바꿀필요 없습니다
한글 전화번호 1636은 기존에 사용하던 숫자 번호에 한글번호를 커빙 하는 방식으로 1636을 통해 전화를 걸면 기존에 설정해두신 숫자 번호로 자동 연결되는서비스 입니다. 기존의 전화번호를 해지하거나 바꿀필요 없이 한글 전화번호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음성 인식 기술!
1636 음성인식서비스는 애플 아이폰의 음성 인식 서비스시리를 개발하고 삼성전자의 SVO 이시스서비스에 기술력을 제공하는 세계1위의 음성 인식 기술회사인 뉴앙스의 기술력을 바탕으로 제공됩니다.

대리점, 에이전시(영업사원) 모집합니다 | 지사장 김연호 010-8607-3228

2014미스코리아 '眞'김서연양이 진속모임으로 활동하며 모든 당선자들이(주)로피아의 홍보대사로 활동합니다.